

“5만원 눈치 보여”... 축의금플레이션에 한숨

#1 30대 직장인 김정민씨는 최근 지인들이 모바일 청첩장으로 일러오는 결혼 소식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지만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물가 속 ‘지갑 사정’을 눈치 보며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식대가 뻥치 비싼 걸 아는데 5만원을 내자니 눈치 보이고, 10만원을 내자니 생활비가 빠듯하다. 축하하러 가는 자리까지 미리 고지서를 처리하러 가는 기분이라 씁쓸하다”고 전했다.

#2 예비 신혼부부인 30대 정지현씨는 최근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격정거리가 생겼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지인들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하객들이 축의금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식 등 송금액 5년새 2배 넘어... 하객들 부담 천정부지 ‘식대’ 원인... 광주지역 평균 40% 폭등

예식 관련 비용이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급격히 오르며 ‘축의금플레이션’(축의금+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의 축의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축의금만 내고 참석하지 않거나 축하의 자리가 계산적인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11일 카카오페이의 ‘2025 머니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모바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은 10만6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

면 불과 5년 사이 2배 넘는 수치다.

2021년 7만3000원, 2022년 8만원, 2023년 8만3000원, 2024년 9월 기준 9만원으로 상승했다.

‘결혼 물가’가 치솟으면서 하객들이 부담하는 축의금 수준이 덩달아 오르고 있어 서다.

이러한 현상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을 보면 광주지역 예식장의

1인당 평균 식대는 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4만 7000원이던 식대가 40% 폭등했다.

혼주 입장에서는 하객이 5만원을 내고 식권을 받아 밥을 먹으면, 하객 1명당 2만원씩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때문에 ‘식대보다는 많이 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기본 5만원이던 암묵적 축의금 틀이 깨지고 있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청첩장을 일종의 ‘고지서’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10만원, 안 가고 봉투만 보내면 5만원’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되고

있다.

급등한 식대를 고려해 10만원 밑으로 축의금을 지불할 시 결혼식장을 찾지 않는 게 일종의 예의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축하하러 가기 미안하다’ 등 ‘노쇼’ 고민까지 하는 하객들도 속출하고 있다.

40대 A씨는 최근 한 달간 축의금으로 40만원을 넘게 지출했다.

그는 “결혼식에 한번 갈 때마다 10만원은 내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만 겹쳐도 월급의 10%를 내는 것이다”며 “청첩장을 받으면 축하하는 마음이 크지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하고 5만원만 보낸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콘텐츠, AI 콘텐츠 창작자 육성 45억원 투입... 교육기관 공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AI 특화 콘텐츠 창작자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고 4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창작자 900명을 집중 육성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생성형 AI 확산과 전환(AI) 흐름에 대응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인재 양성이 목표다.

‘AI 특화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은 콘텐츠 기업, 대학, 지역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9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기관당 5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 과정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려는 지속형 현업인, 취·창업 준비생, 대학생, 콘텐츠 특화 영재 등 예비 인력이다. 각 컨소시엄은 올해 11월 말까지 프로젝트 기반 AI 활용 실습 교육을 운영해 1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발굴된 우수 AI 콘텐츠 프로젝트는 연말 개최되는 관련 행사와 연계한 성과 발표를 통해 산업 관계자와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광주신세계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며 소중한 자연 지키기에 앞장선다.

광주신세계-환경운동연합, 친환경 활동 ‘맞손’

생물다양성 증진 업무협약... 야생동물 현황 파악 등

(주)광주신세계가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나선다. 광주신세계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며 소중한 자연 지키기에 앞장선다.

11일 광주신세계는 광주 광천동 광천철교 인근 광주천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대표와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 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야생동물의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광주천변 수달 등 야생동물 파와 및 보호 활동, 푸른길 주변 곤충 서식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식 후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광

주천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야생동물 생존을 위협하는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에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또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며 천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설명을 들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지난해에도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하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달 서식 현황을 파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상의, 지역기업 자금지원 강화 방안 모색

중소·중견 CEO협의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상의는 11일 오전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CEO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글로벌 경제 불안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준(주)지오메디칼 대

표이사를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주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장, 이진재 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장, 조정화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지원 및 금융지원 제도 안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변동성 확대 상황을 고려해 우량기업 융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소상공인, 소상공인 동행 의지 담은 슬로건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단의 역할과 방향을 담은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 공단본부에서 슬로건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공단의 새로운 슬로건은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다.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단이 소상공

인과 함께 성장하며 현장에서 동행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공단이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소상공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현장 중심 정책 실행과 상생 협력의 방향성을 표현했다.

향후 공단이 주요 사업과 대외 소통 전반에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2026.03 vol. 154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의 CEO

서형호
휴바스코리아 대표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웨이 명장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